

+ 이재명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 방통융합시대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방송기술인 여러분!

경인년(庚寅年)에 우리는 분명히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애기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목소리로 희망을 합창합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새해 희망을 설계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크게 움츠러든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더 쪼그라든 것이 방송 광고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08년 연말부터 불어 닥친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광풍이 겹치면서 우리 방송인들은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최근 광고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고 하지만, 예전과 같은 영광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수용자의 욕구는 양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지상파방송 매체만 양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광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방송 광고시장의 회복 속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것이고, 점유율은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법 개정이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에서 순수 기술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매체는 다매체, 다채널화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매체 환경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고, 광고를 비롯한 수입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방송기술 발전의 효과 중에서 달갑지 않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에는 방송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상파방송은 지금과 같이 사회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국민들의 방송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역할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정부마저도 지상파방송을 산업논리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결국엔 지상파방송이 지향해 왔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회 문화 형성이라는 막중한 역할에 치명적인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모든 방송 매체들이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해 저속한 프로그램만 양산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우울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변화 측면에서는 방통융합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한해였습니다. 강력한 Interactive를 보유한 인터넷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했던 IPTV의 실시간방송 가입자가 최단 시간에 15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IPTV 가입자 수 증가와 IPTV의 '양방향성 서비스' 개발은 상승작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방통 융합의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 급증의 이면에는 다소 부적절한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름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IPTV의 최대 경쟁매체인 CATV 업계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케이블 3.0을 준비하면서 매체의 이동성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ATV 업계의 계획에 따르면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가정 내 STB를 통해 케이블 가입자 Access Network인 HFC망과 Home Network를 연결하여 가정 내의 여러 전자기기와 정보 연동 및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가정의 Home Gateway, Home Server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변신하고 있고, 가입자를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방식이 동원되어도 이를 제재할 정부의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상파방송사는 제반 여건들로 인해 변신은 한계성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역할만 강조될 뿐 이를 진흥시킬 대안은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총아인 양방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지상파방송사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를 보완할 통신망을 소유한 통신업계는 지상파방송사의 강력한 경쟁자일 뿐입니다. 지상파방송사 스스로 그 한계를 무너뜨리거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매체 간 경쟁의 중심에는 방송기술인들이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의 중심에는 방송기술과 방송기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지금까지의 아날로그적인 사고는 하루 속히 떨쳐버리고, 진정한 디지털 마인드로 재무장을 해야겠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에서의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다루는데 방송기술의 전문가인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고차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 수동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분명히 이 혼돈과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간 축적해 온 역량이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충실히 쌓아 가고 있습니다. 모아진 역량으로 방송기술인들이 방통융합시대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